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시편 26:1-4, 베드로전서 5:7-12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날, 축복된 이 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힘든 세상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와 있습니다. 중독, 이단, 3단체, 전쟁, 불치병과 같은 수많은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으로서,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이 나실인으로서 세워 주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사역을 위하여 자신과 후대와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축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켜야 할 미션을 확인하려고 한다. 베드로전서는 AD 63~64년 초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AD 64년 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보는데, 그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베드로전서를 과연 베드로가 썼겠느냐 하는 것이다. 본서의 문장이 헬라어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문장이라고 한다. 영어도 같은 영어가 아니다. 영국에서도 왕실과 귀족에서 쓰는 영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언어가 그 사람의 교육, 교양수준,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언어로 기록된 베드로전서가 과연 베드로가 쓴 것이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교양,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의문은 쉽게 해결된다. 벰전5:12에, “내가 진실한 형제로 이는 실루이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나도 설교를 해 놓고도 녹취록을 보면 또 새롭다. ‘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냐’ 싶을 때가 있다. 대구의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녹취록을 보면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이 메시지를 실루이노가 잘 정리를 해서 글로 써서 보낸 것이라고 보면, 이 의문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도 역사적인 기록은 없고,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다. 쿠오바디스(Quo Vadis)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한다.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한 다를 게 없는 연약한 부분이 더 많았다. 그런 베드로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망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도 품을 수 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고후5:17)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베드로를 수사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 허접 투성이였고, 배울 점도 별로 없었으며, 때로는 불쌍하다 싶은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책임감도 별로 없었고,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무식하면 용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용기도 없었고, 성격도 급했다. 철없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내어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화가 나서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기도 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치유하신 사람이 말고였다. 육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귀를 자르던 되겠는가. 이게 성격장애였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육한다고 슬며씨가 술병을 깨뜨려서 사람을 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는 지키지 못할 맹세를 쉽게 하는 사람이었다. 마26:33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다. 그냥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해도 되는데, 철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까지 걸고 넘어간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 약점이 많은 인물이었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아랫사람에게도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다. 분위기 파악도 잘 안 된다. 갈2:14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식사를 그만두고 도망가 버렸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직접 들었고 바울은 직접 듣지 못했는데, 정작 베드로는 유대인의 평가와 비난이 두려워서 출장부처령 도망해 버리는 것이다. 바울도 또 육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니, 이 중요한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꾸짖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권위가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 자리도 야고보에게 빼앗겼다. 최고의 고백을 하고도 칭찬을 받기보다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는 충성심도 부족했고 기억력도 부족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달 울기 전에 세 번 부

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겁이 많아서 그러기도 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배에서 뛰어나왔다고 했다. 옷을 벗고 수영해야 할 텐데, 겹옷을 걸치고 뛰어나와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다. 허접과 약점이 많았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비겁했던 사람이 용기있는 사람으로,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무시받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권면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 갈보리산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자기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이다.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목걸이를 생각하고, 교회 지붕을 생각하고, 적십자나 헌혈을 생각한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인내와 참음이요, 용서와 사랑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십자가는 영생이며, 이해요, 포용력이다. 갈보리산 십자가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갑갑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깨닫고 마카다랴방에 모여서 세계복음화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내 안에 어떤 환경,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할 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닥쳐왔던 때였다. 베드로는 이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 직장과 가정 생활을 믿음으로 잘 하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처럼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해져야 한다. 부부 사이의 관계, 교회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못 한다.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한다. 죽을병에 걸렸어도 전도현장에 가야 한다.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기도하며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24시간 묵상하면 25시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사업도 길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24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한다. 이 응답을 받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만한 미션의 메시지를 던지고 주님 앞에 간 것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란다. 오늘 우리가 볼 베드로전서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나서, 순교를 앞두고 교회에 보내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부터 변화를 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숙되게 되기를 바란다.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주님 앞에 갔다. 이것이 베드로전 후서다.

1. 베드로전서가 설명하는 복음

- (1) 벰전1:2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영세 전에 미리 알고 택하신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이 영세 전에 꼼꼼하게 계획하신 결과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 이 시대에 불러주셨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어떤 사건, 일, 만남, 가정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 (2) 벰전1:3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 하셨다. 고난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지만, 반면 갈수록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십자가의 구원과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 (3) 벰전1:4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땅의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고 영생을 놓치면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냐?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바로 주면 좋을 텐데, (웃음) 하늘에서 주시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어떤 고난,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며 승리해야 한다.
- (4) 벰전1:6-8에서 베드로는,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5) 벰전1:9에,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말씀한다. 영혼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한 성공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성공인가? 삼성의 회장이 되는 것이 성공인가?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다 얻어도 영혼 구원 못 받으면 그게 성공이겠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천 년의 축복을 이때 여러분과 후대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2. 베드로전서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1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 첫째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세계복음화, 가정·지역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다.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져야 할 것이다. 벰전1:13-14이다. “너희가 순종하는 지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시욕을 본받지 말고” 이어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권면한다. 벰전1:15-16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벰전1:17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두려워할 만큼 조심해야 한다. 삼가야 한다. 철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한다. 주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울고, 소리치른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곤란하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안 되니까 조심하는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교만할 수도 없다. 너무 소중한 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겸손해야 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뺏듯이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겸손과 두려움의 자세로, 그러나 속에는 복음을 위한 굳은 마음, 순교자의 마음, 일심, 전심, 지속이 있어야 한다.

(2) 이렇게 하려면 말씀 생활에 승리해야 한다. 벰전2:2에, “지난 아기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거만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짓을 사모하는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받기 위하여 겸손해야 한다. 뺏뺏하고 교만하게 있으면 황폐해져 버린다.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 없다.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벰전2:5에, 이렇게 해서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을 지켜보면서 나는 정말 많이 놀랐다. 컴퓨터도 스스로 배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둑 실력은 없어도 된다. 영적 실력이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3) 그리고 현상 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벰전2:5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벰전2:9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탁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지 않나.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영생도 천국도 모르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것을 치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구역예배, 말씀운동, 다락방, 지교회, 전문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4)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다. 벰전2:13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고, 이어서 왕 앞에도 순종하라고 했다. 벰전2:17에,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다. 그 당시의 왕이 누구인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였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라.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복음운동을 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민주주의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제도지만, 그것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정치도 경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행복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운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변화시켰다. 그것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예스더였다. 원수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여길 만큼 응답을 받으니까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법을 따르는 것이다. 개혁을 데모와 시위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이다. 예수님은 계급투쟁을 명령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사회를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런 리더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후대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지극히 선한 개혁운동을 하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5)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벰전2:18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상관을 계속 욕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계속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은 체질이다. 약한 리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지혜롭게 성령충만을 받고 후대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흠을 무너뜨리는 복음적인 방법이다. 성경 속 램턴트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노예, 포도, 숙구 현장을 살린 것이다. 벰전2:19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겠는가? 요셉은 그렇게 했다.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생활이 된다고 말씀한다.

(6)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벰전3:7을 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합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21세기는 부부에 대한 공부 필요하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갈등이 너무 많은데 그러러니 하면서 산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상담을 절대 안 받는다. 별 문제 없을 때 부부 상담을 미리 받아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18세기가 좋았다. 남자들이 여자를 확 누를 때니까. (웃음) 지금 그러면 여자들

에 의해 이혼 당한다. (웃음) 시대를 알아야 한다.

(7)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다. 벰전3:9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벰전3:11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무능하고 바보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벰전3:15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결국 복음 때문이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양보해주는 것이다. 전도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왜 참는가? 왜 기다려주는가? 왜 화평을 구하는가? 왜 조심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것이다. 갈보리산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8) 벰전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 성도들의 건강한 생활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다. 벰전4:3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직까지 체질이 변화가 안 되었을 수 있다.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는다. 베드로도 30년 동안 서서히 변화되었다.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하시기 바란다. 벰전4:7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라면 주님 앞에서 근신해야 한다. 훌륭한 분들도 이것을 가지고 더욱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벰전4:8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다. 사랑은 죄까지 덮는 것이다. 벰전4:9-10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9) 벰전5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원로 아닌가. 마지막으로 후배 목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것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날마다 외웠으면 좋겠다. 벰전5:2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에서 개혁을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부추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성도를 생각하지 않고 돈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 있는 후대 중에서 좋은 목회자, 선교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한다. 오직 진도, 오직 선교, 오직 성도, 오직 제자여야 한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맡은 것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벰전5:3에,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다.

(10) 그러면서 젊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권면했다. 벰전5:5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하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벰전5:6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럴수록 겸손해야 한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할 때가 온다. 신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교단의 어른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런 데 시간을 쏟아버릴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서 어른들까지 살리는 램턴트가 되기를 축원한다.

(11)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염려는 불신앙의 결과요, 사단에게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때였다. 너무나 큰 핍박이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한다. 벰전5:7-8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12) 그러면서 벰전5:12에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했다. 이제까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했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 은혜인 것이다. 우리도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대로 살면 안 된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강단의 메시지와 모든 말씀 속에서 나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내가 붙잡아야 할, 내가 실천해야 할, 내가 수행해야 할 나의 미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 강단메시지, 기도수첩,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달라져야 한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다. 현장 문도 못 열게 된다. 셋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하지 못할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했다. 참사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날마다 성숙되어 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복음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만과 타락에 빠져 나의 성공,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사상을 강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야 말씀을 실천하는 체질이 되게 하시고,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모님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베드로가 받은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